

## 항일혁명선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조국애의 최고정화

박 해 속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에 깃들어있는 항일혁명선렬들의 열렬한 조국애를 따라배우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은 력사상 류레없는 최대의 애국투쟁이었으며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조국에 대한 사랑은 조국애의 최고정화입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21권 283페이지)

항일혁명투사들은 누구보다도 조국을 열렬히 사랑한 애국자들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였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은 만난을 극복하고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였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조국애는 오늘 천만군민의 애국열을 백배해주고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조국애의 최고정화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수령에 대한 충정과 결합된 조국애이기때문이다.

조국애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사상감정이며 그것은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 문화를 사랑하고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 자기 부모처자와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발현된다.

조국애의 사상감정들 가운데서도 가장 숭고한 감정은 조국의 모든것을 마련하여주고 꽃피워주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조국애의 최고표현이다.

조국애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으로 되는것은 조국의 운명이 수령에 의하여 지켜지고 담보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 민족의 리익은 수령에 의하여 대표되며 수령에 의하여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승리적으로 진행된다.

우리 조국의 어제와 오늘은 조국의 운명이 전적으로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회주의조국은 오직 수령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수령의 품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사람만이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존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된 애국자로 될수 있다.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다.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고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충정은 수령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유일한 중심이시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에 기초한것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수령님께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되어 수령님이시야말로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분이니라는 철석의 의지를 안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 혁명의 수령으로 모신것을 최대의 영광, 최고의 자랑으로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여 날아오는 총탄도 한몸으로 막아나섰고 적진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령과 결부시키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를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완성의 생명으로 간직하였기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불사신마냥 싸워 승리할수 있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조국애의 최고정화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제도를 건설하려는 조국애이기때문이다.

참다운 애국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유와 행복을 마련하여주는 인민의 나라, 인민의 참된 삶의 요람으로 될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애국투쟁은 단순히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데 국한된것이 아니라 해방된 조국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들이 바라던 조국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에게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조국이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도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바친 애국지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애국심은 착취받고 억압받는 인민대중이 주인된 나라를 건설하려는데로 승화되지 못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조국애는 지난날 애국지사들이 지녔던 애국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조국애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해방된 조국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이 바라던 조국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에게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조국이었다. 항일혁명투사들에게는 오곡백과 무르익는 조국의 풍요한 대지와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인민을 위하여 귀중하였던것이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유와 행복을 마련하여주는 인민의 나라, 인민의 참된 삶의 요람으로 될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다는데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애국주의의 근본특징이 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면 반드시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이 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게 된다는 고결한 혁명정신과 결사의 각오를 지니였기에 시시각각으로 엄혹한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장과 단두대우에서도 그리고 참기 어려운 굶주림속에서도 비판과 절망을 몰랐으며 무비의 희생성과 애국적헌신성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조국애의 최고정화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을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와 결합시킨 조국애이기때문이다.

열렬한 애국은 조국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다.

열혈의 애국은 억척불변의 신념과 강의한 의지가 없이는 발휘될수 없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라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심장의 목소리에는 사랑하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려는 투철한 혁명신념과 백

절불굴의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혁명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지닌 사람만이 그 어떤 모진 시련과 풍파가 닥쳐와도 동요나 비관을 모르고 오직 혁명의 승리를 믿고 그 길로만 꿋꿋이 걸어나가게 된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나라를 찾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은 우리 나라 역사에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간고한 투쟁이었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싸울수 있었고 죽음앞에서도 것처럼 용감하고 떳떳할수 있는것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백절불굴의 의지와 땀수없이 결합되어있기때문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은 혁명이 무기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적의 무기를 빼앗거나 자체로 만들어 자신을 무장하였으며 혁명조직이 위협에 처하였을 때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조직과 동지들을 구원하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적을 무찌르고 장렬하게 희생되는 순간에도 《조선독립 만세!》, 《조선혁명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으며 어떤 역경에서도 혁명가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 당은 항일혁명선렬들의 열렬한 조국애가 맥박치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조국애는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고상한 녀트로 더욱 확고히 뿌리박고 내 나라, 내 조국 그 어디에서나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조국애를 따라배워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온 세상에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